

紙牌



據說從江戶時代開始出現百人一首及花牌等紙牌遊戲、盛傳至今。紙牌幾乎由京都生產、再出貨到全國各地。製作紙牌最需熟稔的技巧、用刷毛一張一張刷上漿糊、從背面到正面的邊緣都塗上、再把背面的紙沿著邊緣貼上的製程。

江戸時代 1603-1868

製作：京都市

歌留多



据说开始制造百人一首和花歌留多等纸牌类是起源于江户时代。直至今日、绝大多数都是在京都生产并供应到全日本。制作歌留多最需要熟练掌握的技术是“背贴作业”、用刷毛在每一张衬纸涂上浆糊、粘在纸牌背面并向纸牌正面折出边缘的工作。

江户时代 1603-1868

制作：京都市

가루타



하쿠닌잇슈 (백인의가인이와카를한수씩뽑아모은것)나 꽃화투 등의 가르타(화투)가 만들어진 것은 에도 시대부터라고 전해진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그 대부분이 교토에서 생산되며 전국으로 출하되고 있다. 가르타 만들기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것은 한 장 한 장 솔로 풀을 바르고 바탕지 뒷면에서 앞면으로 모서리를 뒤집어 테두리를 만드는 우라바리 작업이다.

에도시대 1603-1868

교토시 제작

Karuta (Cards)



It is said that it was in the Edo period that many types of cards including Hyakunin' isshu (the game of 100 famous poems) cards and flower cards came to be made. Since that time and even still today, they have mostly been made in Kyoto and shipped around Japan. The part of card-making that requires the most skill is the backing step in which glue is applied to each piece and the edge of the back piece is bent over the front in to create a border.

Edo period 1603-1868

Produced by City of Kyoto